

세계 경제 동향

11월,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 2026-1-22 미국 경제분석국

- '26년 1월 22일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11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였으며,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다고 발표함.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2% 상승하였음.
- 11월 실질 가처분개인소득은 전년 동월 대비 1.0%,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으며, 실질개인소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3%상승하며 소득과 지출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임.

미국 기준금리 3.75%로 동결 | 2026-1-28 미국 연방준비제도

- '26년 1월 2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함. 연준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실업률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노동시장을 평가하였음. 또한, 물가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며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함.
- ❖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1.25%p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가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24~'25년 11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추이 (전년 동월 대비) ■



■ '24~'26년 1월 한·미 기준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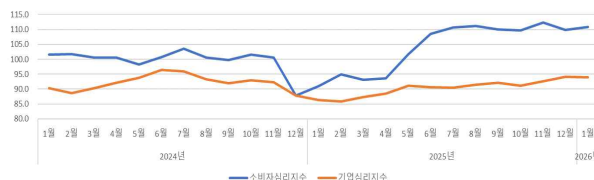


국내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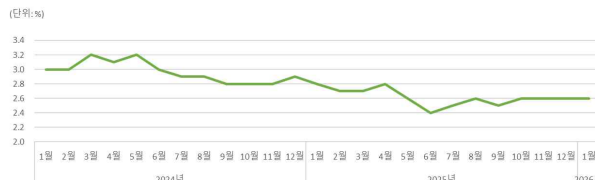
1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1.0p 상승, 기업심리지수 0.2p 하락 | 2026-1-23, 2026-1-27 한국은행

- '26년 1월 23일 한국은행은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0.8로 전월 대비 1.0p 상승했다고 발표함. 생활형편 전망과 가계수입전망이 전월 대비 보합으로 나타났으나, 현재생활형편(+1p), 소비지출전망(+1p), 현재경기판단(+1p), 향후경기전망(+2p)에서 전월 대비 상승이 관찰됨.
-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동일함.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46.3%, 전월 대비 +1.3%p), 공공요금(38.9%, 전월 대비 +2.2%p), 석유류제품(35.3%, 전월 대비 -10.5%p) 순이었으며, 전월 대비 석유류제품의 비중이 크게 감소함.
- '26년 1월 27일 한국은행은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94.0으로 전월 대비 0.2p 하락하였다고 발표함. 제조업 CBSI는 97.5로 전월 대비 2.8p 상승하였으나, 비제조업 CBSI는 91.7로 전월 대비 2.1p 하락함.
- ❖ 소비심리개선과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체감경기 악화가 혼재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함.

■ '24~'26년 1월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 '24~'26년 1월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일본 정부 쌀 재판매 금지 조치 해제 ■ 2026-1-22 농림수산물성; 일본농업신문

- 일본 정부는 '25년산 쌀의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어 수급 불안이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비축미 등을 포함한 쌀의 재판매 금지 조치를 '26년 1월 22일부로 해제함.
- 해당 재판매 금지 조치는 쌀 품귀 현상에 따른 정부비축미의 투기적 재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24년 6월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
- 일본 정부는 쌀 재판매 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쌀 재판매 금지' 및 '재판매 관련 처벌 규정'이 폐지됨.

● 유럽연합과 인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 2026-1-2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인도 상무부

- '26년 1월 27일 유럽연합(EU)과 인도가 '07년부터 진행해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 이번 협정으로 양측은 주요 농식품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임.
- 대표적으로 EU산 와인 관세는 150%에서 최종적으로 20~30% 수준으로 낮아지고, 올리브유 등 식물성 유지류 관세도 최대 45%에서 0%로 철폐될 전망이다. 또한, 빵·초콜릿·제과류 등 가공식품에 대한 최대 50% 관세도 철폐될 예정임. 한편 인도는 차, 커피, 향신료, 포도, 가공식품 등의 EU 시장 접근성 확대를 통한 수출 증가가 기대됨.
-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타결된 이번 협정으로 양국 간의 경제 및 정치적 유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 농업·농정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 2026-1-23 농림축산식품부

- '26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함. 이번 방안은 최근 쌀 가격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격리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가공용 쌀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함.
-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대로 10만 톤 시장격리를 추진할 경우, 올해 쌀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함. 이에 사전격리 4.5만 톤은 추진을 보류하고, 정부양곡 대여곡 5.5만 톤은 반납 시기를 1년간 연장하기로 함.
- 정부양곡 가공용 물량은 최대 6만 톤 추가 공급할 계획임(34만 톤 → 최대 40만 톤). 또한, '25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을 받은 산지유통업체의 의무 매입물량 기준은 150%에서 120%로 완화하여 업체의 벼 확보 부담을 낮춤.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분야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 2026-1-28 농림축산식품부

- '26년 1월 28일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농식품부는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 (성수품 공급 확대)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설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7배 확대 공급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4.0배, 축산물은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1.4배, 임산물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이용해 10.3배 공급을 확대
- (농축산물 할인지원) ① 총 566억원을 투입하여 대형마트 및 중소형마트 등에서 배추, 무, 배, 소고기 등 13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② 가격 모니터링단을 통해 할인 전후 가격을 점검 ③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을 16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농할상품권을 액면가의 30% 할인공급
-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 강화) ① 고령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 활동을 확대 ② 농식품 소비 및 관광 활성화를 지원 ③ 부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 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등) 조사, 도축장 위생점검 등을 강화.